# 소년단

1958.7

원 광 수 그림

## 쏘련에서 제3 인공 위성이 떴다

세계에서 1등가는 과학의 나라 쏘련에서는 1958년 5월 15일에 제3 인공 지구 위성을 발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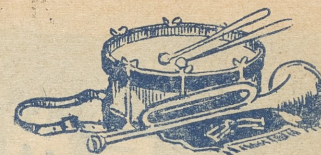
무게는 1톤 3백 27키로그람인데 이것은 제2 인공 위성에 비하여 2.6배나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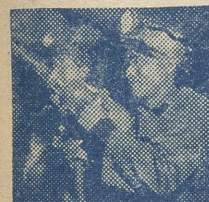
고도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1천 8백 80키로메터이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은 106분이다.

위성의 직경은 1.73메터 높이는 3.57메터이며 (밖으로 나온 안테나의 길이는 계산하지 않음) 원추형으로 되여 있다.

쏘련의 제3 인공 위성의 발사는 세계 과학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비할 수 없는 우월성을 다시 한 번 온 세계에 시위하였다.

이것은 또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준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

# 소년단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 7월호 내용

앞표지 : 야영에로의 출발…리 종록 촬영

글 채규철　　　　그림 유환기

나는 얼마 전 보천보에 가서 류벌공 김 치근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지금 보천 림산 사업소에서 떼를 타는 모범 류벌공입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키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두 어깨가 쩍 벌어지고 너부죽한 이마에 불그스레한 얼굴을 가진 매우 건강해 보이는 분이였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는 보천보에 사는 소년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들만이 아니였습니다. 늙은이들과 어머니들과 누나들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 치근 아저씨가 1937년 6월 3일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보천보 전투 승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압록강 물'결우에 떼로 다리를 놓아 유격대원들이 압록강을 건널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김 치근 아저씨를 여러번 찾아 다니다가 보천보 거리의 뒤에 있는 곤장덕 산'기슭을 감돌아 흐르는 가림천이라고 부르는 맑은 내'물'가의 백양나무 밑에서 만났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항상 바쁘게 지냈습니다. 휴식 날에도 김 치근 아저씨에게는 찾아 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찾아 오는 손님들은 언제든지 소년단원 동무들이였습니다. 그것은 소년단원 동무들이 김 일성 원수께서 보천보를 습격하시던 때 이야기와 김 치근 아저씨가 압록강에 떼로 다리를 놓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도 소년단원 동무들과 함께 김 치근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였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를 둘러 싸고 앉아 있는 소년단원 동무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련방 푸른 잎이 팔랑거리는 백양나무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양나무 앞에 있는 김 일성 원수의 동상도 바라 보았습니다. 이 백양나무 밑에서 김 일성 원수께서는 1937년 6월 4일 밤에 보천보 전투를 지휘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압록강을 건너 우륵골이라는 데서 낯 모를 사람 셋을 만난 것은 1937년 6월 2일 저녁이였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소년단원 동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눈으로 바라 보았습니다.

《나는 그 때 일'자리를 찾아 압록강을 건너 갔었습니다.》

그 때 김 치근 아저씨는 영림서라는 왜놈들이 운영하는 작업소에서 떼를 타고 있었으나 왜놈들은 그에게 극히 적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주흥리라고 하는 압록강변에 두고 일'자리를 찾아 압록강을 건너 가게 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 치근 아저씨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허기진 배를 움켜 쥐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걸어 산'기슭에 있는 오막살이를 막 지나치려고 할 때에 웬 낯 모를 사람 셋이 산'굽이 쪽에서 걸어 오고 있었습니다. 흰 조선 바지저고리를 입은 청년들이였습니다.

그들 중 얼굴이 길쭉한 사람이 김 치근 아저씨의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사는 분이신가요?》

《나는 주흥리에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 보시오?》

김 치근 아저씨가 이렇게 되묻게 되자 이번에는 키가 좀 작은 사람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나는 압록강을 건너 집으로 가는 사람이요.》

그러자 여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얼굴이 둥그스럼한 청년이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떼'목을 잘 타는 사람 같은데 우리를 건네 줄 수가 없겠소? 우리는 조선으로 인삼 팔러 가는 사람들이요. 당신이 요구한다면 돈을 줄 수도 있고 인삼을 줄 수도 있소.》

이 때 김 치근 아저씨는 얼굴이 둥그스럼한 청년의 옷깃 사이로 속에 입은 누런 군복 저고리를 발견하게 되였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고만 전신이 화끈해 나고 눈뿌리가 핑해 났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낯 모를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둥그스럼한 청년이 덥썩 김 치근 아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그 사람의 입에서 훅 뿜겨 나오는 더운 입김을 귀'가에 느끼면서 그와 함께 풀섶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김 일성 대장이 령솔하시는 항일 빨찌산 대원들이요.》

김 치근 아저씨는 깜짝 놀래였습니다. 로동자들과 마을 청년들한테서 장백현에서 싸우고 계시는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기는 하였지만 이런 자리에서 뜻밖에 만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로동자요. 그렇다면 누구

보다도 앞장에 나서 항일 빨찌산 부대를 도와야 하오. 왜놈을 쳐부시지 않고서는 조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소.》

김 치근 아저씨는 아무런 대'구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다 김 치근 아저씨의 가슴을 울려 주었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사촌집에 얹혀 살다가 16세 때부터 압록강변에 있는 주홍리에서 떼'목을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 여 년을 떼를 타 왔지만 왜놈들의 말할 수 없는 착취와 학대 속에서 그날그날의 끼니도 잇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김 치근 아저씨는 어느덧 불끈 주먹을 쥐고 씩 가쁘게 숨을 내여 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내 얼른 건네 드리겠수다.》

그러자 얼굴이 둥그스럼한 청년의 낯이 환해지며 김 치근 아저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오. 보천보에 있는 왜놈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한 부대가 건너야 하오. 김 일성 대장께서두…》

《네?》

김 치근 아저씨는 숨까지 가빠났습니다.

김 일성 장군이 부대를 거느리고 보천보의 왜적을 치러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

《동무, 할 수 있겠소?》

얼굴이 둥그스럼한 청년의 입에서 또 단김이 확 풍겨 왔습니다.

《네! 이건 곧 제 일이 아닙니까》고 김 치근 아저씨는 선선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 다시 압록강변에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한 다음 헤여졌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김 치근 아저씨는 말을 멈추고 소년단원 동무들을 둘러 보며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벙글벙글 웃음을 띄우며 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담 날 저녁이였습니다. 나는 경찰놈들의 눈을 피해서 압록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장군이 부대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설 것을 생각하니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숨을 죽이고 강'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이르니까 가슴이 덜컥해 나서 한참 동안은 멍청하니 물'결만 바라 보았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가 압록강에 가 닿았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물은 홍수가 져서 어제보다 더 불은 데다가 물동이 터져서 물'결은 사납고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떼가 한 쪽으로 밀려 내려 갔기 때문에 강을 건너 가서 떼의 한 쪽 끝을 돌려 놓아야만 했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본시 헤염을 잘 쳤지만 기승을 부리며 넘쳐 흐르는 압록강 물에 얼른 뛰여 들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로동자다! 김 장군 부대를 건느게 하는 것은 나의 신성한 의무가 아닌가! 김 장군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왜놈들을 쳐부시고 로동자와 농민이 정권을 잡는 새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갖은 곤난을 무릅쓰고 싸우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김 치근 아저씨는 울부짖으며 흐르는 압록강 물'결에 뛰여 들었습니다. 세찬 물'결이 김 치근 아저씨의 몸에 와 휘감기면서 몸뚱이를 아래로 아래로만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김 치근 아저씨는 이를 악물고 팔과 다리에 힘을 주어 헤고 또 헤여 나갔습니다. 압록강 세찬 물'결은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진공을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보장하려는 김 치근 아저씨의 굳은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가 강을 건넜을 때에 불같이 뜨거운 손'길들이 어깨와 손목을 덥썩덥썩 잡았습니다. 유격대원들이였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가 몇명의 대원들과 함께 떼로 다리를 다 놓은지 이윽해서 수십명의 유격대원들이 강'가로 왔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또 수십명의 유격대원들이 강'가로 진군해 왔습니다. 조선 군대가 줄을 지어 진군해 오는 걸 처음 본 김 치근 아저씨는 감격하여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때 대렬 맨 뒤에 섰던 분이—뒤에야 알았지만 그이가 바로 김 일성 원수였습니다. 소리없이 저의 손을 잡고 나직히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동무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요. 동무가 아니였더라면 부대가 강을 건느지 못할 번 했소.〉

그런데 그 때 나는 이이가 누구일가? 하는 것도 생각지 않고 나도 나직히 〈김 대장두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웃음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김 치근 아저씨는 편뜻 생각난 듯이 손을 들어 보천보 뒤의 곤장덕 산을 가리켰습니다. 곤장덕 산 우에는 가문비, 부은비나무들이 빽빽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저 산 꼭대기에서 유격대원들은 하루'밤, 하루 낮을 지내며 전투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김 일성 원수께서 유격 대원들과 함께 보천보 전투에 대한 것을 토의하시던 것과 유격대원들이 삐라를 찍는 것을 이 수림 속에서 보았습니다. 6월 4일 밤 원수께서는 전투를 앞두고 유격대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격대원 동무들! 우리는 지금 꿈에도 잊지 못했던 조국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왜적의 착취와 압박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천보 전투에서 대 승리를 거두어 우리 인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독립에 대한 신심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밤 왜놈과의 전투에서 매개 대원들이 영웅적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원수께서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곤장덕 산을 내리려고 차비하셨습니다. 어느덧 첫 부대는 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천보로 향해 산을 내리는 유격부대를 본 김 치근 아저씨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장군님! 저두 유격부대와 같이 보천보로 내려 가겠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가 이렇게 청을 들자 김 일성 원수께서는 생각해 보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는 산에 남아 있으시오. 그랬다가 전투가 끝나면 곧 돌아서서 압록강에가 떼부터 돌아 보시오.》

그래서 김 치근 아저씨는 몇 사람의 유격대원들과 함께 산 우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 일성 원수께서 유격대원들을 거느리고 산을 내린지 이윽해서 가림천 물방아'간 근처에서 총 소리가 한 방 들려 왔습니다. 뒤미처 경찰 주재소와 삼림 보호구 그리고 농사 시험장과 면사무소 앞에서 콩볶듯 한 총 소리가 일제히 울리더니 면사무소에 불이 달리고 련달아 이곳 저곳에서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만세 소리가 메아리를 치며 높이 울리고 사람들이 가림천 쪽으로 쏠렸습니다. 김 일성 원수께서 전투를 지휘하신 백양나무 밑으로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도 산 곡대기에서 목청껏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소리는 땅을 진동하고 산을 울리며 멀리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김 치근 아저씨가 또 만세를 부르려고 할 때에 곁에 섰던 유격대원이 《우린 얼른 가서 떼를 돌아 봐야겠소》하며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는 여기에서 말을 멈추고 무엇인가 생각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조국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김 치근 아저씨의 목소리는 매우 감동적으로 울렸습니다.

유격대원들이 로획한 무기와 탄약과 물자들을 지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게 되자 김 치근 아저씨는 그들과 함께 물자를 지고 장백현으로 들어 갔습니다. 장백현에 이르러 휴식하게 되자 김 일성 원수께서는 군복 주머니에서 흙을 한 줌 꺼내여 오래오래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것은 조국의 흙냄새가 그윽하니 풍기는 조국 땅의 흙이였으며 선조의 숨'결이 배여 있는 조국 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곤난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용감히 싸워 왜적을 모조리 소탕하고 조국을 찾아야 하오. 조국이 없이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소.》 원수님을 곁에서 바라보며 이런 말씀까지 듣고 보니 김 치근 아저씨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눈'시울까지 뜨거워났습니다. 《장군님! 저는 곤난 앞에서 물러 서지 않고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원수께서는 김 치근 아저씨의 어깨를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는 벌써 곤난을 이겨 낸 사람이요. 만일 동무가 떼로 다리를 놓아 주지 않았더라면 유격부대는 보천보로 진격하지 못했을거요. 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법이요.》

김 치근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감개무량한 얼굴로 백양나무를 바라 보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보다 살기 좋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아름다운 사회주의 꽃동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근로자 아저씨들이 밤과 낮을 이어 이룩하여 놓은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열매들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을 더욱 찬란히 꽃피여 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 나라에는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희망으로 들끓고 있으며 사회주의 락원에서 사는 기쁨과 행복의 노래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이는 참으로 땅 우의 락원이며 행복의 꽃동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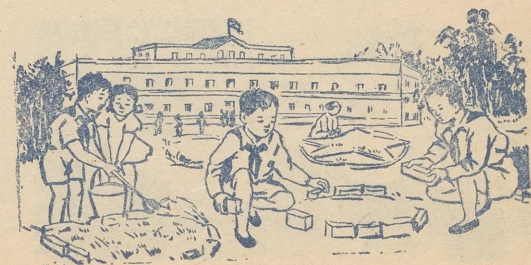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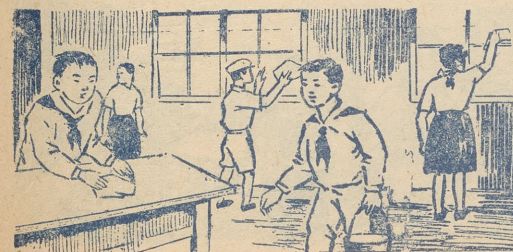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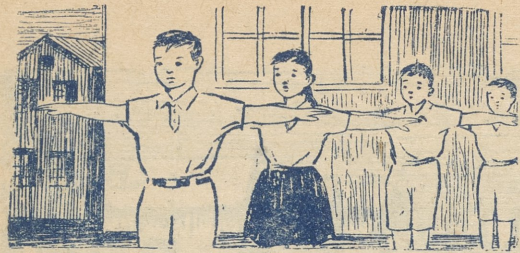
사회주의 사회—이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낡고 락후한 모든 것을 미워하며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적인 생활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서는 점차 낡고 락후한 것들은 물러 가고 있으며 보다 새롭고 진보적인 것, 보다 아름답고 문화적인 것들이 날과 더불어 꽃피여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새 사회를 꾸며 나가는 우리 나라의 오늘의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전 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본 제국주의놈들의 쇠사슬 밑에서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 오던 그런 식민지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풍부하고 아름다운 생활과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는 가장 훌륭한 인민인 사회주의 건설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먹고, 입고, 사는 모든 생활을 더욱 문화적으로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땀흘려 건설하여 놓은 웅장 하고 아름다운 거리들과 마을에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며 온갖 비위생적인 것을 모조리 없애 버리며 군중 위생 도덕을 잘 지키는 등 사회주의 새 사회에서 사는 사람답게 높은 문화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때는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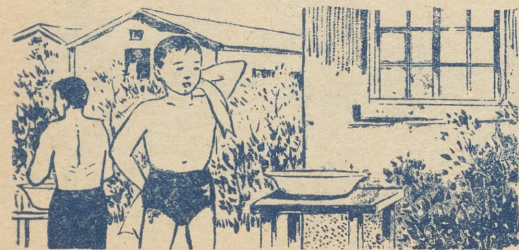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을 문화적으로 꾸리는 일——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눈부시게 진행되는 것에 따라 나서는 중요한 일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인민들이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하고 있는 조선 로동당은 인민들이 튼튼한 몸으로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를 빛나게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우리에게는 생활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꾸리지 못하며 군중 위생 도덕들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흔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락후한 나쁜 잔재들이며 하루바삐 고쳐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바로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부터 전체 인민들이 한사람같이 동원되여 위생 문화 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중요한 과업으로 내놓은 이 사업은 단순히 계절과 어느 한때에만 진행될 사업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과 함께 일상적인 일로 오래 두고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오늘 전체 인민들은 물론 우리들—소년단원들도 한사람 같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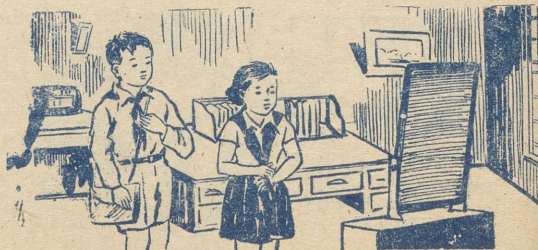
이 운동은 벌써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민들과 소년단원들은 새로 건설된 아름답고 웅장한 학교들과 집들, 그리고 문화 오락 시설들을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게 꾸리고 있으며 수많은 목욕탕들을 건설하며 우물과 변소들을 위생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토질병을 없애기 위한 사업으로 게, 가재, 골뱅이들을 잡아 없애는 운동이 한창이며 특히 전염병을 전파하는 파리, 모기, 쥐 같은 것들을 박멸하는 운동은 공화국 전 지역에서 광범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소년단원들은 이미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일들에 열성껏 참가하였으며 또한 많은 훌륭한 성과들을 이룬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단원들은 이번 이 사업에서도 그전보다 더 훌륭히, 더 열성껏 참가할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면 위생 문화 사업을 더 잘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참가해야 하겠습니까.

**대 및 분단들이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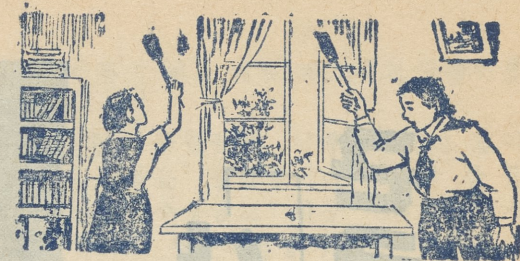
우선 전체 학교 대 및 분단들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모임들을 가지고 모든 소년단원들에게 이 사업이 가지는 목적과 의의를 계속 철저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이 사업은 단순한 파리 잡이나 청소 미화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사회주의 건설자다운 새롭고 문화적인 생활 습성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 및 분단들에서는 학교 선생님들과 보건 문화 일'군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소년단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낡은 생활 유습들을 제때에 고쳐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속보와 만화 등 직관물을 통하여 매개 소년단원들이 자기 위생을 잘 지키지 않거나 군중 위생 도덕을 위반하는 일들에 대하여 제때에 비판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 및 분단들에서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위생 문화 선전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을 잘 조직해야 합니다.

지금 평양 시내 일부 학교들에서는 《위생 문화 꼬마 선전대》를 조직하여 가두 인민반 내에서 위생에 대한 선전 해설 사업들을 진행하며 어느 때 어디서나 위생을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을 발견하면 제때에 그를 고쳐 주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매개 학교 대들에서도 이 경험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이 군중 위생 도덕을 잘 지키도록 하는 사업에 전체 소년단원들을 적극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학교 위생일에 배우는 위생 지식을 가지고 마을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제때에 해설 보급하는 사업도 잘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대 및 분단들에서는 위생 지식을 알기 쉽게 만든 그림극, 스켓취 동화 구연 등을 가지고 위생 지식 보급에 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매개 소년단원들이 해야 할 일.**

우선 매개 소년단원들은 자기의 몸을 깨끗이 하며 자기 학교를 잘 꾸리는 일에 열성적으로 참가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위생을 잘 지키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선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년단원들은 항상 목욕을 자주 하며 손톱을 제때에 깎고 몸차림도 단정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활은 규률 있고 문화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자기의 교실을 항상 깨끗이 청소 미화하며 학교 두레에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더 아름다운 화단도 가꾸며 어디서나 깨끗하고 명랑하게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개 소년단원들은 자기 마을의 문화 건설을 힘껏 도와 나서야 하겠습니다.

소년단원들은 매일 아침 조기 체조를 끝내고는 반별, 분단별로 마을 청소를 실시하며 파리, 모기, 쥐 잡기 운동에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더우기 디스토마가 발생하는 지대들에서는 골뱅이, 게, 가재 등 박멸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변소와 오물장들을 개조하며 조합들마다에서 목욕탕과 탁아소 등을 짓는 일에도 적극 도와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근로를 사랑하자

한 설 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때로 공장들을 견학하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평양 방직 공장에서 나는 나어린 녀성 로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으리으리하게 복장하고 많은 방직기 사이로 재빠르게 오가면서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째여지는 천의 바탕을 살피며 끊어지는 실오리를 이어대는 것을 볼 때 문득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무한히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군 합니다.

나는 희천 기계 공장을 견학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한 쩨호에서는 어느 기술 전문 학교에서 온 실습생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모의 앞 채를 버쩍 들어 쓰고 선반기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기계 부속품들을 깎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아 가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속품들을 깎는데 깎을 수록 그것은 이쁜 모양으로 변해 갔습니다. 참말 신통한 일이였습니다.

나는 그 학생들의 얼굴을 다시금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즉 그 얼굴들이 아까보다 훨씬 더 이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들은 깎여지는 기계 부속품과는 달리 거죽 즉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 머리 속까지 이쁜 것입니다.

나는 그 학생들의 머리 속에 살아 있으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과 지혜를 보았으며 거기서 보다 이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 것에도 비길 수 없는 이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름 묻은 그 학생들의 얼굴이 그리도 이뻐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음악 대학에도 가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민족악과 양악 예비 과 학생으로 구성된 두 개의 꼬마 관현악단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이 어린이들의 연주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악기들의 맑고 고운 가락들이 화합하여 고르롭게 흐르는데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소년들의 생신한 감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들 중에서 장래 특출한 음악가가 날 것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즉 일제와 빈궁이 조선 사람의 생활을 짓밟고 섰을 때에는 악기 하나도 마음 대로 얻을 수 없어서 바가지장단에 버들피리 부는 것이 고작이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의 소년들은 참말 행복하며 행복한 가운데서 놀랄만치 예술적 재능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나는 또 농촌 협동 조합에도 나가 보군 합니다. 작년 여름에는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개성 지방에 가서 공장과 농촌을 참관하였습니다. 바로 3·8선 이남의 강화도가 아득히 내다 보이는 어느 농업 협동 조합에 가서 농민들과 담화하시고 난 수상님은 문득 모여 앉은 사람들 중에서 젊은 써클원들을 발견하시고 노래든지 춤이든지 마음 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써클원들은 아무 반주도 없이 우렁찬 합창을 불렀습니다. 참말 잘 불렀습니다. 수상님도 아주 기뻐하시면서 썩 잘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이 써클원들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예술 공부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써클원들은 더욱 이뻐 보였고 그 노래는 더욱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로동 가운데서 키워진 예술만이 진정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동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로동은 생활의 창조자입니다. 그러기에 로동 속에만 생활의 진실이 있으며 생활의 진실이 있는 곳에서만 진정 건전하고 아름다운 예술이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소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집에 돌아 가면 들에 나가서 들일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때는 물론 그것이 싫었는데 그 뒤에 생각하니 이것이 나의 아주 귀중한 재산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농촌이나 공장에 가서 그들 속에서 일하고 싶은 충동을 받군 합니다.

나는 근로를 사랑하는 정신을 어릴 때부터 가졌고 이 정신으로 오늘까지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방 전에도 주창 근로하는 사람, 특히 로동자의 생활과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을 썼습니다.

실로 로동자들은 나의 작가 생활에서 으뜸가는 선생이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로동자들 속에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작품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붓을 들 때마다 로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때 가지는 그런 정신으로 글을 썼으며 또 오

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옛날 사회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을 일등 가는 사람으로 쳤습니다. 부자나 왜치들은 농민이나 로동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마땅히 멸망해야 하며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근로하는 사람이 주인으로 되였으며 이 사람들의 사상으로 모든 일을 꾸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됩니다. 놀고 먹는 사람,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오늘에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못 생긴 사람으로 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남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인민 학교 일학년 학생들도 저희들 학교를 지을때 다만 벽돌 두세 장 씩이라도 메고, 이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것을 날라갑니다. 어린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조국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학생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애국자로 될 것이며 기사로 되고 과학자로 되고 작가 예술인으로 되고 모범 로동자로 될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을 근로하게 하며 학생들을 앞으로 훌륭한 근로 일'군으로 만들도록 어버이의 마음으로 교육 교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누구나 각각 자기의 취미와 희망대로 장차 자기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각급 학교에서 그 학교에 해당한 직업 교육 대책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산 실습을 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농촌 모내기를 도와주고 《ㅍ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 대로 하는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공장이나 농촌을 견학하는 것도 또 생산 직장에 진출한 졸업생들과 상봉하는 것도 모두 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 희망 대로 직업을 가지고 그 일에 보람차게 일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지금 초 고중을 졸업한 학생들이 일단 생산 직장으로 들어 가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산 직장에 들어 가서 기술을 배우면서 근로하는 사이에 정말 근로하는 사람의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치른 다음 그들이 다시 상급 학교로 진학한다면 그들은 더 잘 공부할 수 있으며 더 견고한 사상으로 자기를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 직장에서 일 잘하고 또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각급 상급 학교를 진학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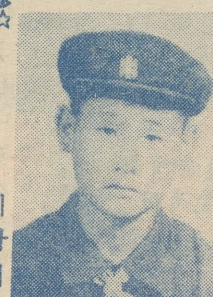
생산 직장은 근로를 사랑하는 나라의 새 학교입니다. 누구나 이 학교를 다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치러야 그는 앞으로 자기 직업에서 훌륭한 일'군으로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일'군! 이에서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매개 학생들에게 이 영광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거나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학생들에게는 영광이 약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학생들은 수치스러운 길을 버리고 영광의 길로 나아 가야 합니다.

# 나는 커서 무엇이 될가?

## 나는 기사가 되련다

평남 강서군 강선 중 학교 대
제1분단 김 성진

나는 앞으로 훌륭한 기사가 되여 일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나는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하나는 초 고중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기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중을 졸업한 뒤 직접 로동속에서 기술을 익히며 배워 기사가 되는 것이다. 나는 로동 속에서 직접 기술 공부를 하여 기사가 될 것을 결심하였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강선 제강소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와 형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일제 때에 고용 로동자로서 학교는 고사하고 자기 이름도 변변히 쓰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8. 15해방 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로 밤마다 기술 전습회에 참가하여 열심히 기술을 배웠다. 그리하여 지금은 용해공으로부터 제강 직장 부직장장으로 일하신다.

나의 형은 고중을 졸업하고 공장에 진출하였다. 밤에는 김책 공대 야간 기술 학부에 가서 리론 학습을 하시며 낮에는 배운 지식을 가지고 로동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의 형은 지금 분석 실험 기수가 되였고 앞으로 기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나의 형님은 나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 준다.

현장에서 직접 로동을 통해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다시 야간 대학에서 리론 학습을 통해서 익히니 정말 훌륭한 기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로동 속에서 배우고 단련된 기술 인재가 되여야 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리하여 나도 형님의 모범을 따라 현장에 나가 주간에는 로동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야간에는 야간 전문 학교를 다니며 믿음직한 기사가 되겠다는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

##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자가 되겠다

함북 경흥군
제 1 중 학교(인민반)
현 춘 자

인민반 졸업 학년이 되면서부터 나는 많은 꿈을 품어 왔습니다. 《나는 커서 무엇이 될가?》,《선생님이 될가?》,《의사가 될가》,《로동자가 될가?》

이렇게 나에게는 되고 싶은 것이 하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느 과목보다도 자연과와 실습 시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습지에 나가 관찰하며 식물의 재배법을 배우는 것은 참 재미 있으니까요.

분단의 실습지를 가꾸는 일에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나를 보고 어떤 동무들은《춘자는 장차 로력 영웅이 될거야》하고 롱담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5. 1절이 갖 지난 어느 토요일 방과 후에 우리 분단에서는 경흥 농업 협동 조합을 견학하게 되였습니다.

벌써 밭갈이는 다 끝났으나 랭상모 이앙이 한창이여서 협동 조합에서는 몹시 분주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작업반 별로 나뉘어 랭상모를 뜨며 모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참 흥겹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들도 조합원들을 도와 랭상모를 운반해 드렸습니다.

《동무들! 우리 협동 조합이 마음에 듭니까? 앞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양도 기르게 됩니다. 그때면 저 푸른 언덕 우에는 양과 염소들이 떼를 지어 다닐 것이며 이 산'기슭에는 실과 나무들이 줄지어 서고 구락부와 병원, 탁아소들도 생길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문화 주택에서 살게 됩니다.》

조합 민청 위원장 아저씨의 이야기에 우리는 모두 감탄하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때때로 협동 조합원들이 흥겹게 일하던 모습과 제 1차 5개년 계획 후에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답게 꾸며질 우리 나라 농촌을 그려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전선에 나가신 후부터 어랑군에서 계속 아버지의 뜻을 이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논밭에 나가 곡식을 가꾸며 풀을 뜯어 주는 것을 여간 즐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식량과 공업의 원료를 생산하는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자! 이는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나는 많은 꿈 가운데서 오직 하나의 희망만을 품게 되였습니다.

나는 초중을 졸업하고는 꼭 농촌에 나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기술을 배워 기수, 기사가 되며 다수확을 내는 로력 영웅이 되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른 과목은 물론 자연 과와 실습에서 실험 실습과 관찰을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편집부로부터

이번호 부터 잡지 《소년단》은 《나는 커서 무엇이 될가?》라는 지상 토론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동무들이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써서 본 편집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내가 걸어온 길

2중 로력 영웅
김 직 현

요사이에만 해도 나는 소년단원 동무들로부터 수 십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참으로 기특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하의 보물을 캐 내시기에 수고하시는 아저씨! 영예로운 공화국 2중 로력 영웅인 아저씨에게 우리의 인사를 보냅니다.…우리들은 알고 싶습니다. 아저씨가 걸어 오신 어제와 오늘의 생활에 대하여…》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의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의 눈시울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눈물겹던 먼 어린 시절과 행복한 오늘을 생각해 보군 합니다.

*　　*

지금부터 40년 전의 아오지는 고역과 눈물과 원한의 땅이였습니다.

일찌기 부모를 여윈 나는 어려서부터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나는 주인놈에게서 마소처럼 부림을 당하면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록 나에게는《우리 주인과 같은 사람들은 밤낮 놀면서도 돈만 벌고 잘 사는데 탄광 로동자들이나 나는 왜 밤낮 죽도록 일을 해도 굶주리며 천대만 받을가?》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전부터 나는 아오지 탄광 로동자들이 좁고 더러운 함바집(합숙)에 살면서 콩밥 덩이 한 개씩 얻어 먹고는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탄광 로동자들은 언제나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는 탄부들을 몹시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비록 못 먹고 못 살았지만 의지가 굳고 용감했기 때문입니다.

굴이 무너져서 일하던 자기 동무들이 상했거나 죽었을 때 탄광 로동자들은 십장놈과 탄광주놈이 있는 사무실에 밀려가 용감하게 싸우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디여 나는 열 세 살 나던 해에 천대와 멸시로 가득 찼던 주인집을 박차고 탄광 로동의 길에 들어 섰습니다. 이 때부터 나의 탄부 생활은 시작되였습니다.

탄광은 정말 말이 아니였습니다.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갱 속에 들어 서면 숨이 탁탁 막혔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운 《노구찌》라는 왜놈 탄광주놈은 썩어져 가는 동발도 아랑곳하지 않고 로동자들을 굴로 몰아 넣었습니다. 자본가놈들은 사람이야 어찌되든 석탄만 캐 먹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갱 속에는 아무런 로동 보호 시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갱도로 기여 다니면서 등'짐으로 석탄을 운반하였습니다.

해'빛이라고는 구경도 못하는 우리 탄부들의 얼굴은 언제나 누렇고 띵띵 부어 있었습니다.

왜놈과 자본가놈들은 우리 로동자들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그 때는 돈만 있으면 못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때문에 로동은 아주 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탄광주놈은 조선 로동자 몇명쯤 죽어서는 떠끔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립니다.

1938년의 여름은 내내 장마가 계속되였습니다.

탄부들은 물이 절벅절벅하는 굴 속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앓아 눕는 사람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탄광주놈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앓아서 일 나오지 못하는 탄부들에게서 임금마저 잡아뗐습니다. 정말 탄광은 죽음의 굴이였습니다. 억수로 퍼붓는 비'물은 갱 내로 흘러 들고 있었습니다. 이 날도 탄부들은 무시무시한 굴 속으로 하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살아 가는 처지에 홍수가 진다고 일을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홍수가 났습니다. 어두워질 무렵에 굴 속에서는 갑자기 아우성 소리가 났습니다. 물이 밀려 들어 굴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날도 43 명이나 되는 탄부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탄광주놈은 이것은 자연 피해이므로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격분한 로동자들은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동자들은 더욱 단결하여 죽은 사람의 장례비와 그 가족들의 생활비를 요구하여 일어나 싸웠습니다.

때 마침 우리들은 김 일성 수상님에 의해

더 많은 석탄을 캐내기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는 2중 로력 영웅



고속도 굴진에서 얻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김 직현 아저씨

지도되는 항일 유격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습니다. 우리들은 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뒤'이어 일어 난 가스 폭발 사건으로 단번에 50 여 명의 로동자들이 죽었을 때 우리들은 탄광주를 반대하여 엿새 동안이나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8시간 로동제를 실시하라》

《임금을 올려라!》 하고 수 많은 로동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싸웠습니다.

며칠 동안은 순사놈들이 땅딸망치를 휘두르며 일하러 나오라고 위협했습니다. 탄광에는 왜놈 헌병들도 욱실거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겁나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굴하지 않는 우리들의 투쟁에 질겁을 한 탄광주놈은 하는 수 없이 석탄 한 차 캐는데 5전을 더 올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탄부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여 원한 많은 왜놈의 세상은 끝장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던 해방의 날이 찾아 왔던 것입니다.

조국을 찾았으며 그의 떳떳한 주인으로 된 나는 참으로 나라 없는 슬픔이 얼마나 컸던 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날이 갈 수록 우리 살림은 꽃피여 가고 희망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로동은 참말 영예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적게 들이고 더 많은 석탄을 캘 수 있을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도 인제는 당당한 나라의 주인이며 일터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남쪽 땅에 둥지를 튼 미제는 우리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 나는 전선에서 목숨 바쳐 싸우는 전사들의 마음으로 갱 속에서 일하였습니다.

더 많은 석탄을! 이것이 우리의 첫째가는 구호였으나 굴진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잡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굴진에서 새 방법이, 기술이 요구되였습니다. 기자재가 부족되고 로력이 적은 가운데서도 나는 밤'잠을 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굴진에서 3배의 능률을 낼 수 있는 련속 발파법을 창안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학교라고는 문 앞에도 가 못본 내가 어떻게 이런 새 작업 방법을 창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로동당이 앞길을 밝히는 사랑하는 조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1956년 말에 나는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김 일성 수상님은 우리 인민들이 보다 살기 좋고 보다 행복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업을 먼저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업의 빵인 석탄을 더 많이 캐기 위해서 굴진을 채탄에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바로 이 임무가 굴진공인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가슴은 높뛰였습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꼭 150메트르 굴진을 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돌아 오자 나는 곧 종합 굴진 브리가다를 만들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까지 40~50메트르 밖에 굴진을 못하던 것을 단번에 100메트르, 150메트르를 뚫고 나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이 시기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고속도 굴진이구 뭐구 석탄이나 빨리 캐라고 하면서 우리당의 옳은 정책들을 비난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로동당을 믿고 로동당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조금도 주저 않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할 수록 용기를 내여 끝내 우리는 한 달에 150메트르의 굴진을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탄광은 현대 설비를 갖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들의 일터에 찾아 오는 사람은 정말 놀랍니다.

말 그대로 지하 궁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콩크리트와 철아치형으로 만든 갱도로 인차를 타고 드나들며 석탄은 벨트 콤베야로 운반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1,800메트르의 땅 속에 들어 가도 통풍 장치가 되여 있는 갱 속은 지상에서 보다 더 일하기 좋습니다.

달마다 우리는 수 많은 물품들을 무상으로 공급 받으며 수 천 원씩 저금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7시간 로동을 하고도 해마다 한달씩 쉬며 휴양소와 정양소에도 갑니다.

우리에게는 구락부와 병원이 있으며 직공 학교, 야간 전문 학교들에서 마음대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왜놈들만이 살던 벽돌집에서 오늘은 우리 탄부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일제 때 탄부들이나 또는 오늘 남반부 탄부들이야 어디 꿈에나 생각할 일입니까! 이처럼 행복만이 깃들어 가는 우리 탄부들의 생활—오직 이것은 인민의 나라인 공화국의 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것입니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준 여러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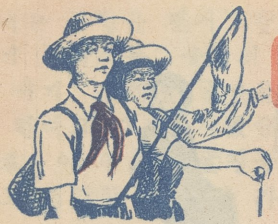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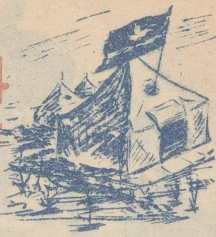
× ×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동무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우리들은 무엇이나 아끼지 않으렵니다.

동무들은 바로 우리의 뒤를 이어 사랑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꾸려 나갈 래일의 주인들이기 때문입니다……》

☆ 굴진에서 새 성과를 알리는 2중 로력 영웅과 콩크리트로 된 현대식 갱도



# 동무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 여름 방학을 맞는 소년단 대와 분단들에서 할 일

민청 중앙 위원회 학생 소년부 부부장 정 택 선

머지 않아 우리들의 즐거운 여름 방학이 시작된다.

록음이 우거진 산과 들, 물'새 날아도는 시원한 바다'가, 그리고 쇠'물을 뽑아 내는 용광로, 웅장하게 일떠서는 거리들과 협동 마을! 이 모든 것은 지금 소년단원들을 정답게 기다리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항상 귀중하고 훌륭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올해에도 소년단원들이 여름철을 더 즐겁게 휴식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참으로 많은 야영소와 휴양소들을 마련하여 주었다.

그러면 이 즐겁고도 유쾌한 여름 방학 동안에 대와 분단들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 우선 준비 사업을 잘 해야 한다.

소년단 대와 분단들에서는 무엇 보다도 우선 지도원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소년단원 동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내야 한다.

그것을 알아 낸 뒤에 그중에서도 가장 재미 있고 유익한 일들을 잘 조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와 분단들에서는 방학 동안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선생님들이 강습에 참가하는 관계로 지도를 충분히 받을 수 없으며 또는 많은 동무들이 야영으로 떠나거나 혹은 다른 지방으로 려행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아주 세밀해야 한다.

### 방학 동안에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

우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꼭 잊어서는 안될 것은—그것은 **김 일성 수상님을 선두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활동과 그 전통을 깊이 학습하며 그들처럼 참되게 살며 그들처럼 용감하며 그들을 본받는 일이다.**

그러기 위하여 소년단 대들에서는 김 일성 수상님의 혁명 활동 연구실을 더 잘 꾸려야 하겠다.

그리하여 항일 빨찌산 투쟁에 참가했던 혁명 투사들과 조국 해방 전쟁에서 영예를 떨친 공화국 전투 영웅들과의 상봉, 우등'불 모임도 가지는 것이 좋다.

한편 이러한 혁명 투사들을 모시고 대 모임이나 입단 서약식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함께 분단들에서는 반드시 김 일성 수상님의 혁명적 활동을 내용으로한 작품들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일들도 조직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대와 분단들에서는 방학 동안 소년단의 조직 사업을 더 잘 해야 한다.

우선 대와 분단들에서는 소년단원들에게 소년단의 임무와 권리를 잘 가르쳐 주며, 그들로 하여금 이에 적극 참가케하여 해야할 일들을 옳게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년단원으로서의 영예감을 간직하게 하며 자기가 생활하는 조직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길 줄 알도록 잘 교양해야 한다.

또한 대와 분단들에서는 김 일성 수상님의 지도 밑에 일제를 반대하여 싸운 아동 혁명단 출신인 혁명 투사들과의 이야기 모임 등을 조직하여 소년단원들에게 소년단의 애국 전통을 가르쳐 주며 그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높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방학 동안 분단들에서 해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소년단원들에게 위임을 옳게 수행하도록 하며 소년단 규정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는 일이다.

이것은 일부 소년단원들이 방학이라 하여 되는 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와 분단들에서는 방학 동안 소년단원들에게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 문제이다.**

이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례를 들면 오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힘찬 증산 투쟁들을 전개하고 있는 공장들과 농업 협동 조합을 방문하여 로동이 얼마나 영예로우며 고귀한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특히 공장과 협동 조합의 로력 혁신자들과의 상봉 모임들은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와 분단들에서는 일'손이 바쁜 공장과 건설장들과 그리고 농업 협동 조합들을 찾아 가 자기들의 힘에 알맞는 일로서 그들을 도와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음은 이미 훌륭한 경험을 쌓은 《꼬마 5개년 계획 활동》을 통한 교양이다. 특히 이 활동은 다만 활동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소년단원들을 교양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

특히 지금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위생 문화 사업에 전체 소년단원들이 한사람 같이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도시들과 마을들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청소 정돈하며 전염병 디스토마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힘써야 하겠다.

다음으로 대와 분단들에서는 방학 간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소년단원들이 **학습을 잘하며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 일에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특히 분단과 반들에서는 소년단원들이 방학간 숙제를 제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습하도록 서로 의논하며 꾸준히 공부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은 수업이 없는 사이이므로 일부 소년단원들은 질서없이 귀중한 나날을 헛되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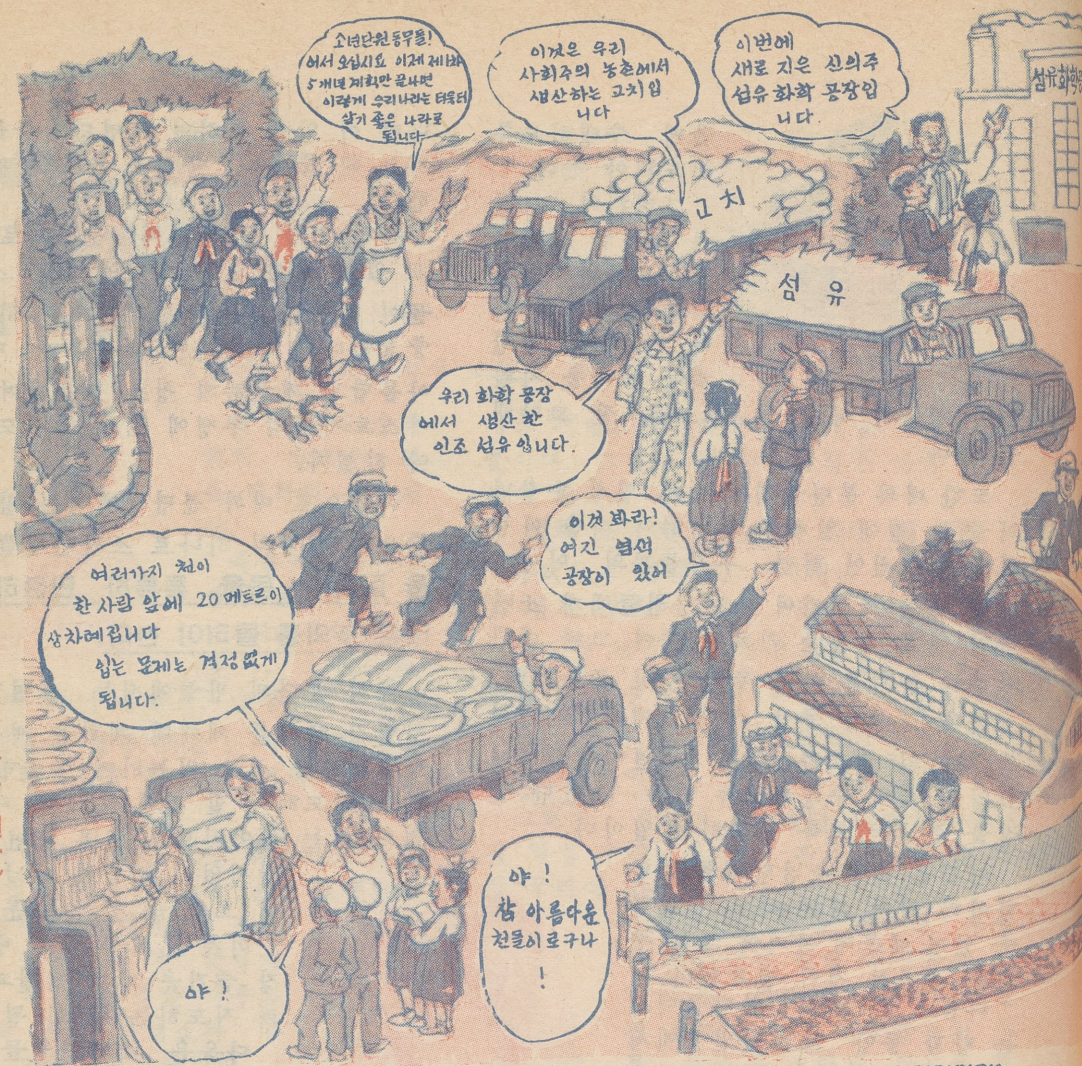
이것은 또한 여름 방학의 가장 즐거운 야영 생활과 결부시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소년단원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야영 생활을 재미 있고 유익하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밀한 계획 밑에 유람 려행을 떠나며 각종 체육, 오락, 유희들을 조직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대와 분단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할 수 있다.

방학은 다만 휴식 하는 때가 아니다! 올해 여름 방학도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장에서,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더 많이 배우며 더 튼튼히 몸을 단련하여 래일의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기 위해 힘쓰자!

# 사회주의 락원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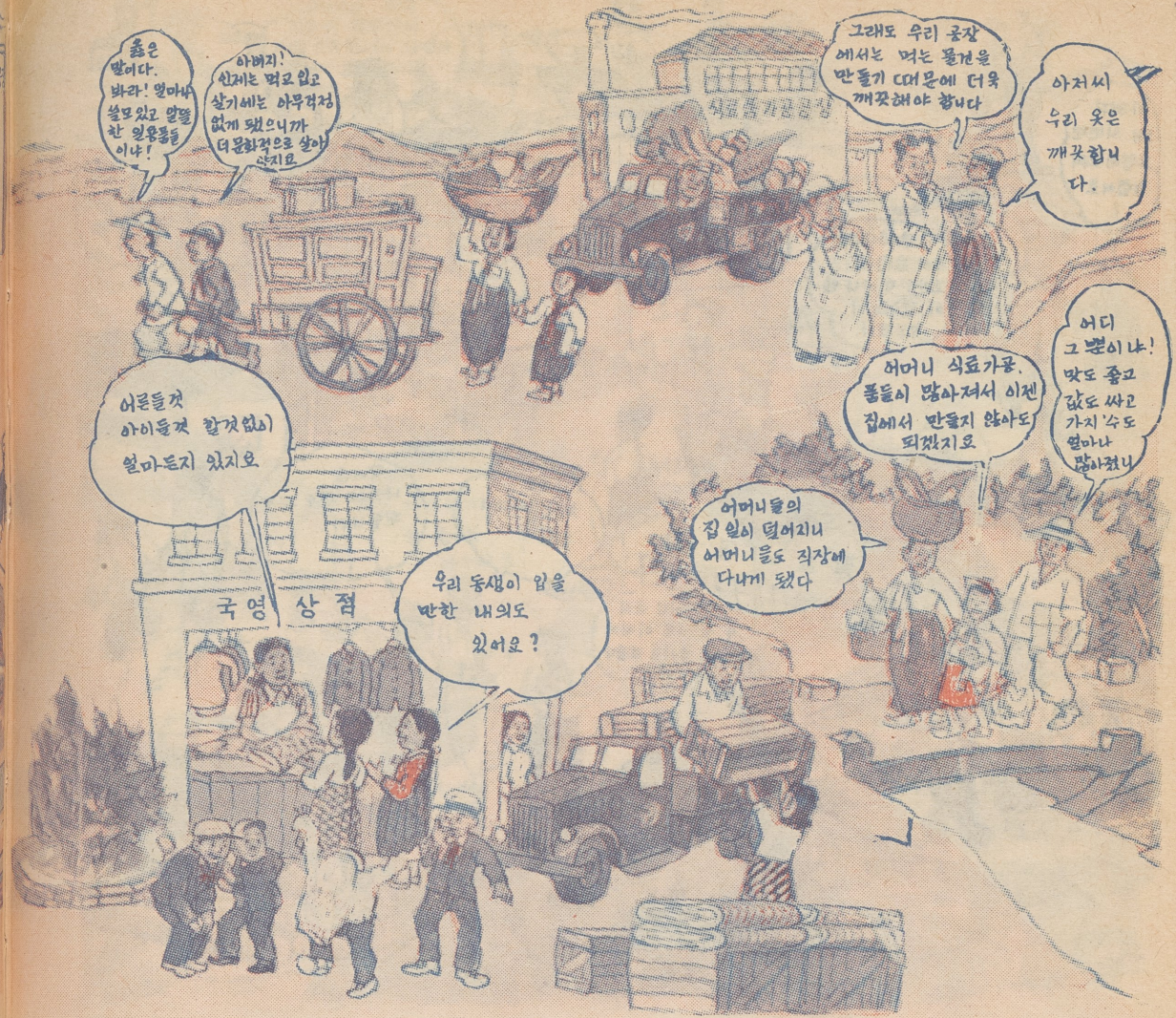
(제一차 五개년 계획중 경공업 부문 전망)

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이면 파리와 모기가 많이 생겨 나고 그것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한다.

아래에 여름철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문. 여름철엔 어떤 질병들이 발생합니까?**

답. 여름철엔 주로 파리에 의하여 전파되는 장티브스와 적리, 모기에 의하여 전파되는 일본 뇌염과 마라리아 등 전염병이 성할 수 있으며 기타 일사병, 열사병, 식중독과 같은 병들도 때때로 나타난다.

**문. 장티브스와 적리는 어떻게 전염되며 어떻게 앓는 병입니까?**

답. 이 두 가지 병은 다 같이 환자의 대변이나 토한 물질에 섞여 나온 병균이 주로 파리에 의하여 음식물에 옮겨지고 그것을 사람이 먹었을 때 병에 걸린다. 장티브스의 증상은 처음에 약간한 오한이 나면서 몸이 달기 시작하여 점차로 열이 오르며 1주일 후에는 40도 내외로 열이 높아진다. 이 때면 벌써 혀가 마르고 혀'바닥에 누런 설태가 끼며 머리가 아프고 심하면 정신을 잃는다. 8~9일쯤부터는 배와 가슴에 수수알만한 불그스레한 두드러기 같은 것이 돋는다. 이 병은 보통 한달 가량 앓게 되고 앓고 난 다음에는 머리털이 빠진다.

적리는 보통 붉은 배알이라고 하는 병인데 아래'배가 아프고 뒤가 무죽해 지면서 심하면 하루에 수십 번 변소에 가나 대변은 잘 나오지 않고 대변에는 곱과 피가 섞여 나온다.

**문. 이 병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이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예방 주사를 철저히 맞아야 한다. (장티브스)

② 물, 야채, 물'고기 등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

③ 병균을 묻혀 가지고 다니는 파리가 음식물에 붙지 못하도록 하며 파리들을 철저히 잡아 없애야 한다.

④ 우물, 변소, 오물장, 하수도 등을 항상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⑤ 환자가 발생하면 곧 보건 기관에 알리고 교통을 차단해야 하며 환자를 멀리하고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문. 여름철 파리를 철저히 소멸하자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 그것은 우선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파리 잡기 운동을 계속하면서 파리의 유충, 구데기가 발생하면 그 곳에 설설 끓는 물을 퍼붓거나 생석회를 뿌려서 제때에 전멸시켜야 한다. 그리고 파리가 성하기 전 이른 봄철 땅을 들추고 번데기를 잡아 내는 일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파리가 번식할 수 있는 더러운 장소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며 정돈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기만 한다면 파리는 머지 않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공연한 걱정》

어머니—얘 영남아 여기도 파리가 있구 나 얼른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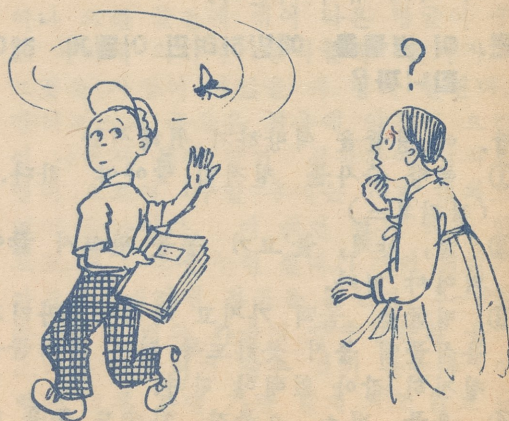
영남— 다 잡았어요.

어머니—다 잡다니 아직 파리가 있는 데?

영남— 우리 학급에선 하루 수므 마리 씩 잡으라고 했는데요 뭐…

어머니—그래도 있는거야 잡아야지 않 겠니?

영남— 내가 다 잡으면 다른 애들은 못잡게요.

어머니—!?

## 현상?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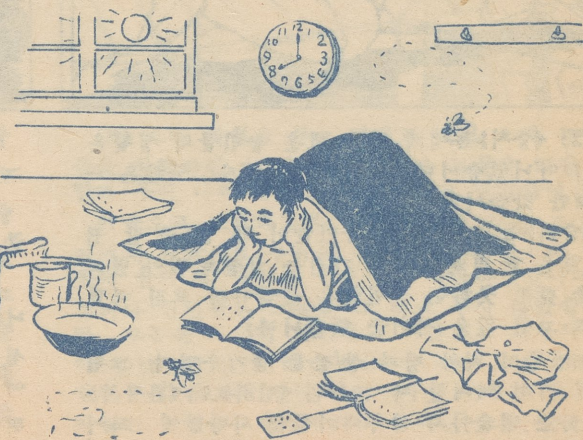
### 친애하는 독자들에게

잡지 《소년단》은 이번 호부터 현상 문제를 싣기로 하였습니다. 해답은 그 달 15일까지 편집부에 도착해야 합니다.

당선되는 동무들은 답을 맞친 동무들 중에서 추첨으로 30명을 골라 다음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보내는 곳—평양시 민청 출판사 《소년단》 편집부 (봉투 겉에는 <현상 문제답>이라 쓰고 2원짜리 우표를 붙이면 됩니다.)

(1) 4 해 동물(네가지 해로운 동물)이 무엇이며 이것들이 퍼뜨리는 병은 어떤 것들입니까?

(2) 이 동무는 어떤 점들을 고쳐야 할가요?

(1) 지금으로부터 약 90 여 년 전 그러니까 1860 년대로부터 있은 이야기 입니다.

평남 강서 고을에 사방 30 리 땅을 독차지한 《김 승지》라는 대 지주가 살았습니다. 이 놈은 원래 대원군 아래에서 승지(왕실 서기)라는 높은 벼슬'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자기의 권세로 강서 고을의 넓은 땅을 독차지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땅을 모조리 빼앗아 대 지주가 된 《승지》놈은 이곳 인민들의 피 땀을 짜 내여 《아흔 아홉간 집》을 지었습니다.

(2) 《승지》놈에게 땅을 떼운 농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였습니다. 해마다 가난과 주림은 더 심해만 갔습니다.

《승지》놈은 여름 내 농민들이 한 말 두 말 꿔다 먹은 쌀 빚을 가을에 가서는 곱절로 받아 냈고 빚을 갚지 못하는 농민들은 붙잡아다 모진 채찍으로 고된 일을 시키군 했습니다.

농민들이 피와 땀과 살'점을 뜯기우면서 고된 일에 지쳐 헤매일 때 그놈은 《진사》요, 《한지사》요 하는 벼슬아치 나부래기들을 사랑방에 모여다 놓고 매일 같이 술놀이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3) 《승지》놈의 집에는 고'간지기, 한지기, 사랑지기 등 숫한 머슴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소와 같이 살았습니다.

《승지》 놈은 언제나 머슴들이 어깨 우에 멘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승지》놈은 산놀이 하러 갈 때도 산'속 오솔'길로 고을 수 있는 외바퀴 수레를 탔고 머슴들은 그것을 밀고, 끌고 해야 했습니다.

(4) 이 밉살스러운 《승지》놈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흔 아홉간 집》의 새 주인으로 《승지》의 아들 면수란 놈이 나타났습니다.

면수놈의 농민들에 대한 착취는 더 가혹했습니다. 그놈은 농민들의 피'땀으로 가꾼 마흔 닷섬지기 논을 판 돈 3,000 량을 왕실에 《헌납》하여 《주서》라는 명예 벼슬을 얻기 위해 미쳐 날뛰였습니다. 이 놈도 역시 땅'바닥엔 발을 대지 않고 머슴들에게 받들려서만 다녔습니다.



(5) 착취와 방탕만으로 일삼던 면수놈은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투전놀이에 미쳤습니다.

면수놈은 사랑'방에 《풍수》니, 《선비》니 하는 따위의 건달들을 몰아 넣고 투전놀이로 밤을새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슴들은 밤'잠도 못 자고 밤찬을 차려야 했고 갖은 시중을 다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면수놈이 돈땅이나 떼우는 날이면 그놈의 성푸리에 애꿎은 머슴들만 봉변을 당하군하였습니다.

(6) 리왕 조선이 망하고 왜놈들이 조선을 강점했을 때는 면수의 아들 병옥이란 놈이 늙은 면수를 대신하여 새로운 착취자로 나타났습니다.

병옥이란 놈은 왜놈의 앞잡이로 온갖 협잡을 다 해가며 인민들의 재산을 략탈하였습니다. 그놈은 우선 왜놈들이 조선에서 《토지 조사령》을 내리고 토지를 략탈하던 첫 시기에 경찰들과 측량'군들을 끼고 많은 땅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7) 일제에 충실한 병옥이는 일본 경찰을 등에 지고 해방전 마지막 시기까지 농민들을 마소와도 같이 부려 먹으면서 자기의 배만 채웠습니다.

병옥이는 자기를 보고 개가 짖기만 해도 엽총으로 마구 쏘아 죽였고 또 이놈은 자기의 요구를 듣지 않는 그 어떤 늙은이건 녀자이건 할것없이 마구 때리는 데 서슴치 않았습니다.

(8) 오랜 세월을 두고 대대로 내려 오며 농민들을 착취하던 《아흔 아홉간 집》 놈들은 해방과 함께 우리 나라 남쪽으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남으로 도주하였던 리 병옥이란 놈은 그 후 미제의 앞잡이로 우리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이곳에 들어 와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은 그놈을 그 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드디여 인민들의 이름으로 처단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3대를 내려 오며 계속 인민들의 피 땀을 빨아 먹던 《아흔 아홉간 집》의 착취는 영영 이 세상에서 끝장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 우화 개미와 거미

글 원도홍 그림 남현주

벌레들이 가을 걷이를 다 끝낸 어느 마가을 날이였습니다. 나무 우에 집을 짓고 사는 거미가 나무 밑에 집을 짓고 사는 개미네 난가리를 내려다 보고 매우 수상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 난가리보다 너의 난가리가 몇 곱절이나 더 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글쎄 너희들은 우리처럼 훌륭한 그물도 없이 그리고 몸'집도 비할 나위 없이 작고 힘도 약하지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단 말이냐?》

거미는 마치 개미네가 자기네 것을 훔쳐 간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태연히 대답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조건들은 모두 다 잘 아나 그러나 그물만 믿고 여름 내 팔짱을 끼고 앉아서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게 매우 유감스럽군.》

× ×

요행을 바라고 로력하지 않는 자에겐 쟁기도 힘도 가치가 없는 법입니다.

## 시 바다는 좋구나!

정서촌

이른 새벽, 앞 가슴을 벌리고
힘껏 바다'바람 마시는 아이들아,
해당화 곱게 핀 흰 모래 불을
학교 마당처럼 내 닫는 아이들아.

좋구나, 너희들은
온 종일 뛰며, 물 장구를 치며
고기'배를 향해서 손'길을 저으며
그저 너희들은 웃기만 하누나.

너희들 머리 우에 물' 새는 춤추고,
쏴 쏴 밀려 오는 푸른 물'결은
발목을 자꾸만 어루만져 주니
너희들은 그냥 즐겁기만 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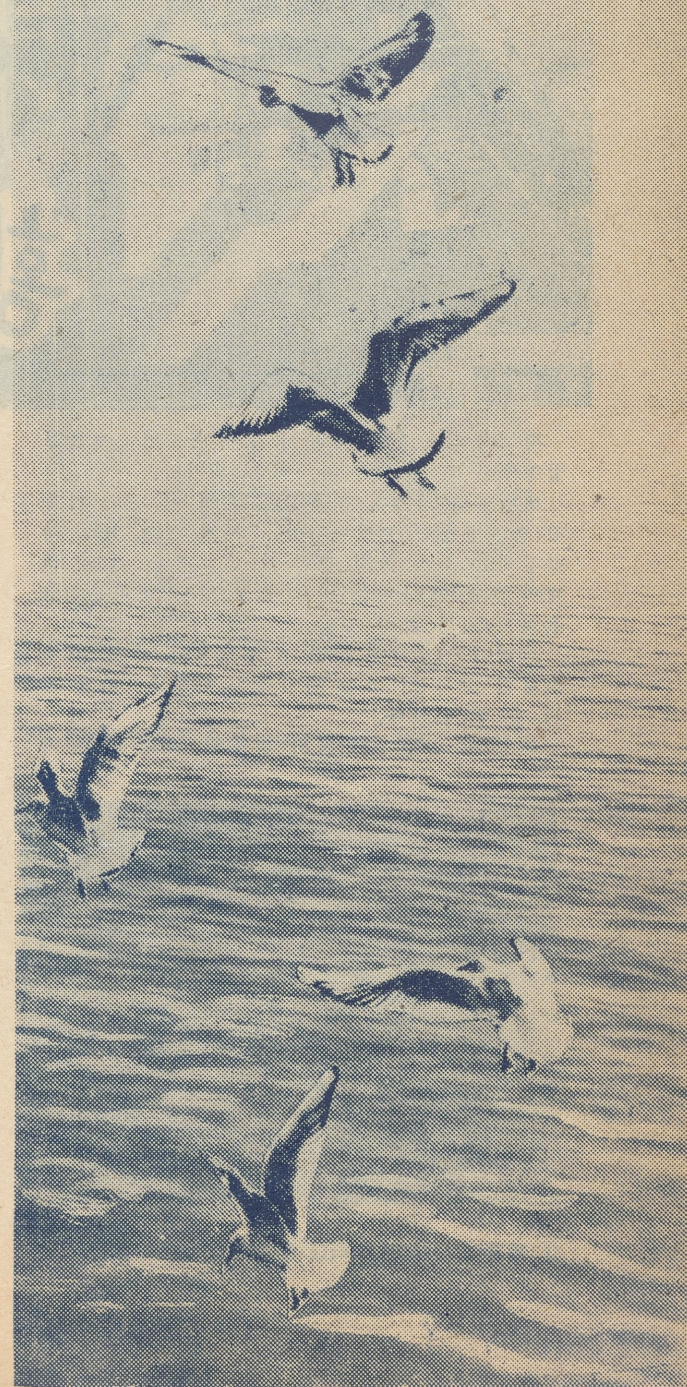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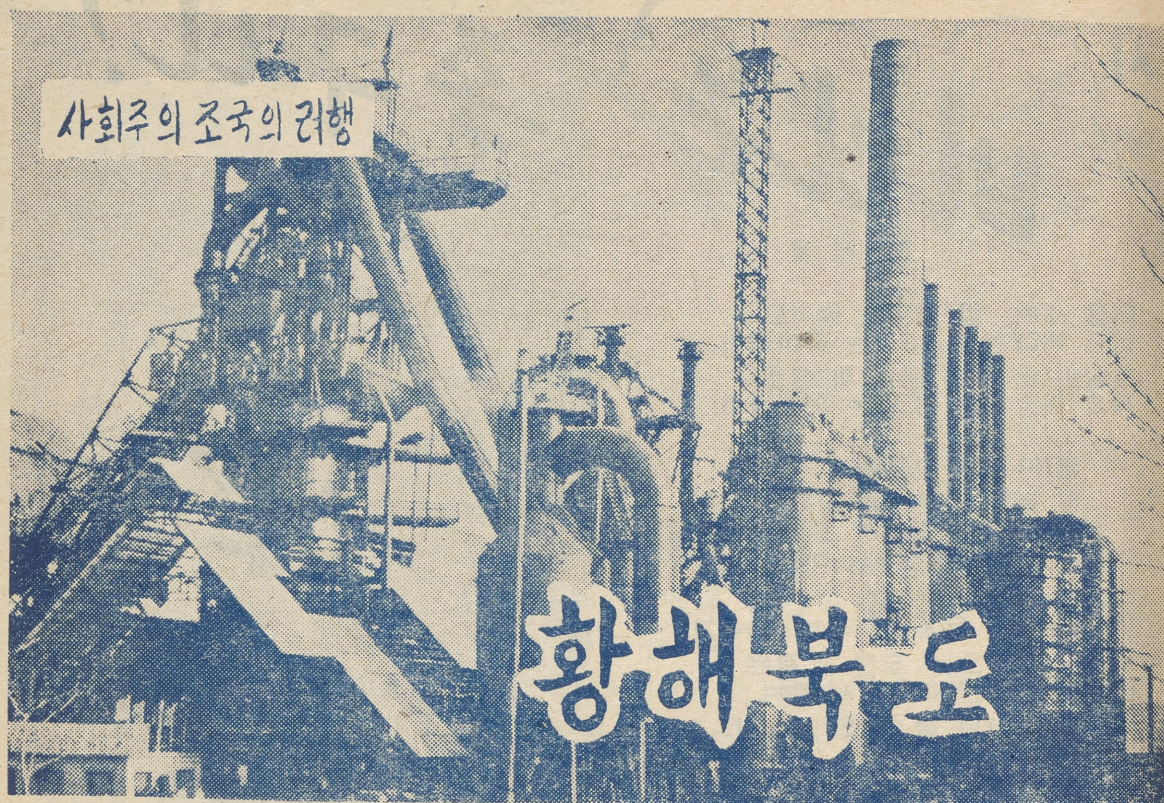
아이들아, 너희처럼 어린 시절에
나도 바다'가에 서 있군 하였다,
해 저무는 저녁에 옷 자락을 날리며
애 타는 눈으로 바다를 보았다.

그러나 고기'배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는 저물어도 돌아 오지 않고,
나는 혼자서 모래성을 쌓다가
쓸쓸히 그것을 허물군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으냐!
공화국의 땅, 우리의 바다,
휴양소 창문을 활짝 열으면
떠 오는 아침 해도 보이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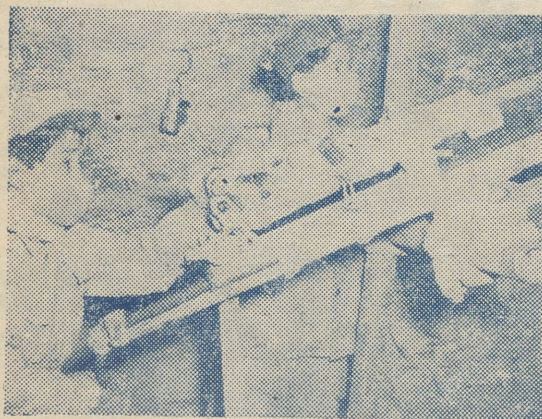
그렇다, 마음껏 웃으며 달려라,
돌 팔매를 힘껏 던져도 보라,
그러다가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생각에 잠겨도 보라.

너희들은 훌륭한 일'군이 될 사람,
건축가도 과학자도 농학자도 될 사람,
좋다, 너희들의 크나 큰 꿈을
푸른 바다 우에 그려도 보라.

나는 부럽구나! 참말로 너희들이
만일 다시 한번 너희 나'새가 된다면
나도 목에 붉은 넥타이를 날리며
와 와 소리치며 달리고만 싶구나,
너희들과 함께 바다'가로, 모래불로!

황해북도는 우리 나라 농업과 목축업, 채굴업 발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도이다.

재령강 이남에서 서흥강 류역에 이르는 기름진 옥토벌에는 해마다 오곡 백과 무르 익고 례성강에는 사시 장철 숭어 잡이 고기'배 오르 내리며 오호비 산령을 끼고 동부 산 지대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12년 전 왜놈들이 이 땅을 강점했던 당시 이 고장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었다.

오늘 이 고장 인민들의 행복과 기쁨을 담아

① 홀동 광산 청년 돌격대 민청원 형님들의 굴진 작업

싣고 유유히 흐르는 재령강도 당시는 이 고장 인민들의 원한과 설음의 강이였다.

왜놈들은 이 강을 타고 오르내리면서 이 고장의 기름진 옥토벌에서 농민들이 피'땀으로 가꾼 곡식들을 모조리 빼앗아 일본으로 실어 갔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식민지 노예의 생활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졌으며 진정 살기 좋고 행복한 새 생활이 꽃피게 되였다.

황해북도는 1954년 가을 황해남도와 함께 본래의 황해도로부터 갈라진 이래 인민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

산지가 많은 황해북도는 《산을 잘 리용하라》는 로동 당의 구호를 받들고 과수업과 목축업을 발전시키는 길에 더욱 힘차게 나서고 있다.

그리하여 과수 재배에서는 해마다 그 면적이 늘어 가고 있으며 황주, 봉산, 서흥 등을 비롯하여 곳곳에 국영 과수 농장들과 협동 조합 과수원들이 있다. 도 내에는 5개년 계획 기간에 2만 정보의 새 과수원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산간 지대의 농, 목축업 발전에서 국영 신계 종합 농장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옛날 척박하고 무연한 벌판이던 이 곳에 오늘은 국영 종합 농장이 건설되여 그 면모가 날로 변해 가고 있으며 지난 날 굶주리고 헐벗던 이 지역 농민들의 생활은 비할 바 없이 향상되여 가고 있다.



신계 종합 농장에서는 우유와 빠다가 생산되여 우리 나라 곳곳에 보내여진다.

황해북도의 농촌은 오늘 가는 곳마다에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여 전체 농가 호수의 94.8% (1957년 말 현재)가 망라되고 있으며 날과 더불어 사회주의적이며 문화적인 농촌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우기 당과 정부는 황해북도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여 어지론 관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봉산, 은파, 사리원, 황주, 연탄 등 5개 시, 군의 12,400 여 정보의 수리 불안전답과 메마른 땅을 옥답으로 바꾸는 커다란 자연 개조 공사이다. 이 공사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960년에 완공되게 되는데 그 때에 가면 해마다 21,000 톤의 알곡을 더 생산하게 될 것이다.

황해북도는 금년에 40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게 되여 한 집에 알곡이 평균 39 가마니씩에, 현금 13,000 원 이상이 차례지게 될 것이다.

황해북도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황해 제철소가 있다. 이 제철소는 우리 나라 중공업의 심장으로서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 년간의 가혹한 전쟁에서 무려 2,760 개의 폭탄, 3,480 여 개의 소이탄이 투하된 이 제철소는 여지 없이 파괴되였으나 이 곳 로동자들의 영웅적 로력에 의하여 전후 불과 1년만에 또다시 붉은 쇠'물을 뽑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힘으로 설계되고 건설된 제1호 용광로와 해탄로는 지난 4월 30일 드디여 쇠'물과 콕스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야금, 공업과 함께 황해북도의 또 하나의 크낙한 자랑은 중석광을 비롯한 금, 은, 동 기타 유색 금속광의 매장량이 많은 그것이다.

그 중에도 연산군의 홀동 광산 (다금속광), 수안군의 수안 광산 (다금속광), 신평군의 만년광산(탕그스텐) 등은 매우 유명하다. 홀동 광산은 약 6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여기서 벌써 동광을 제련해 내던 곳이다. 이를 탐내여 1893년에 일본놈《미쯔이》와 미국《콜보관》, 영국《콜레안》이란 놈들이 우리 선조들의 손에서 광산을 빼앗아 귀중한 자원을 모조리 략탈하였다.

이렇듯 이곳 모든 광산들은 해방 전에는 왜놈들이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던 곳이였지만 오늘은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과 위생 보건 문화 시설들이 갖추어진 그야말로 로동자들의 행복한 일터로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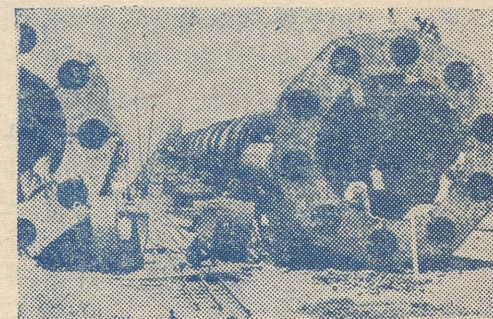
이 광산들에서 생산되는 광석들은 남포 제련소에 보내여져 제련된다.

그리고 마동 쎄멘트 공장 지대에는 700메트르 이상의 두터이를 가진 석회암 층이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의 자랑인 신마동 쎄멘트 공장이 형제 나라 쏘련의 10억 루블리 원조의 일부로 건설되고 있다.

이 공장은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그 규모가 동양에서 제일 큰 것으로 명년 5.1절 전으로 완공되게 된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해마다 40만 톤의 쎄멘트가 더 생산되여 사회주의 건설장들에 보내여 지게 될 것이다.

황해북도에는 가는 곳마다에 명승 고적들과 침략자를 반대해 투쟁한 슬기로운 전적지들이 많이 있다.

우리 나라 3 대 폭포의 하나인 박연 폭포를 비롯하여 정방산성 태백산성 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더우기 황해북도의 동부 산지대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도내 애국적 인민들이 원쑤 미제를 반대해 향토를 지켜 싸운 곡산 빨찌산의 빛나는 투쟁 업적이 깃들어 있다.

이처럼 황해북도는 공화국 북반부의 다른 도들과 함께 인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주의 락원으로 꽃피여 가고 있다.

② 신마동 쎄멘트 공장 건설장에서의 소성로 조립 공사

③ 신계 종합 농장의 양떼

평양 제 33 중 학교대
12분단 지도원
서 정애

백 대진 그림

한 정자 동무는 우리 분단의 한 소년단원이다. 그는 분단의 위임이라면 언제나 반드시 실천하며 근로를 사랑하는 참된 소년단원이다. 더우기 우리 학교 대 대위원인 그는 여러 동무들로부터 두터운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어느날 정자는 나를 찾아 와서 기쁜 얼굴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 ×

정자 어머니가 장사를 그만두고 신생 금속 생산 협동 조합 로동자로 들어간 후였다.

어느날 정자는 어머니가 일하는 신생 금속 생산 협동 조합을 찾아 갔다. 정자는 가끔 로동을 하시는 어머니를 찾아 가서는 그를 격려해 드리군 하였다.

이날도 조합원들은 모두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비누'갑이며 치솔'갑, 쇠고리들을 만들고 있었다. 그 속에는 어머니도 보였다.

정자는 남들과 같이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한량없이 기뻤다. 문득 옆 담'벽에 붙은 게시판에 눈이 갔다.

게시판에는 조합원들의 생산 실적을 붉은 줄로 표시한 그라프가 붙어 있었다. 정자는 조합원의 이름 중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찾았다.

정자는 그만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생산 실적은 겨우 70%를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자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날 그는 어머니를 만나지도 않고 뛰쳐 나왔다.

그날 저녁이였다. 정자는 하루 종일 우울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 오셨을 때 정자는 서글픈 얼굴로 말을 하였다.

《어머니! 아직두 일을 다 배우지 못했어요?》

심상치 않은 낯으로 이렇게 묻는 바람에 어머니는 대뜸 량미간을 찌프리며 성난 듯이 말하였다.

《일을 배우면 얼마나 더 잘 하겠다구! 에구, 로동을 해 먹다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와 같이 들어 간 사람들은 벌써 제대루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난 힘들어 못하겠다. 이건 죽두룩 일해두 어디 남들을 따라 가겠더냐. 그러니 배당금이란건 씨원치 않지!》

《어머니, 건 어머니의 잘못이얘요 기술을 배우면 될거 아니예요?》

《글쎄 난 로동 해 먹을 팔자가 못돼 그러는지…》

어머니는 어딘가 조합에 든 것을 후회하는 기색까지 보였다.

《네가 하두 졸라대기에 조합에 들긴 들었지만 막상 해 보니 이거야 힘들어 해 먹겠더냐!》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잘못 생각이야요. 지금 우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어요. 이건 힘 안들이구 손쉽게 될 수 없는 일이라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곤난을 이겨내며 건설을 하구 있는 거얘요》

《글쎄 안되는 걸 어쩌라구 성화냐!》

《어머니 난… 오늘두… 조합에 들렸댔어요.… 난… 그라프두 봤어요. 난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정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성해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뒤적거렸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였다. 어머니는 의롱 속에서 무엇을 싼 보따리를 꺼내 들더니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어머니는 요즘에 와서 일요일이면 늘 이런 보따리를 가지고 어딘가 가시군 하였다. 정자가 물으면 할머니네 집에 동생들의 의복을 가져간다고 하였고 어떤 때는 얼버무려 버리기도 하였다.

정자는 이날도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좀 당황해 하시며 조합 아무개네 집에 간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내 보내고 난 정자의 머리 속에는 그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지났다. 정자는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정자는 자리를 차고 뛰여 나왔다. 어머니는 벌써 철'길을 건너 신양리 쪽으로 바삐 걸어 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뒤를 따라 가면서 정자는 어머니에게 미안스러운 생각이 자꾸만 났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정자는 자기 왼 팔뚝에 붙어 있는 대 열성자 표식을 바라보았다. 《아니다! 어머니를 다시 그런 길로 들어 가게 해서는 안된다!》하고 다짐하군 하였다.

어머니는 정자가 생각했던 바 대로 신양 시장으로 들어 갔다. 정자는 가슴이 덜렁 내려 앉는 것을 느꼈다.

정자는 어머니를 따라 시장으로 들어 갔다. 어머니는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았다. 정자는 수매 상점부터 들려 보았다. 그러나 거게도 어머니는 없었다. 정자는 막 울고만 싶었다. 그는 다시 뒤'골목으로 걸어 갔다. 정자는 그만 주춤하고 서 버렸다. 어머니가 낯모를 녀자에게 그전 날에 팔던 옷들을 내보이며 흥정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하고 정자는 침통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 속에는 안타까움과 분통한 마음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흠칫하고 돌아섰다. 정자의 얼굴을 보자 어머니는 당황해서 급히 옷들을 다시 싸가지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자는 어머니와 함께 걸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머니! 노여워 마세요. 난 안타까왔어요… 어머닌 조합에 드실 때 뭐라구 말씀하셨어요. 남을 속이는 장사는 손을 씻겠다구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닌 또 그런 장사를 하세요? 이걸 우리 동무들이 안다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난 대 열성자의 자격이 없어요!》

정자의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어머니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나직히 그러나 똑똑히 말하였다.

《내가 정신이 빠졌지.… 일하지 않구 편히 살아 볼 생각이 이런 짓을 또 하게 만들었구나… 정자야! 이젠 나두 채심하겠다.…》

× ×

이것이 정자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의 전부다. 그 후 어머니도 두달만에는 드디여 150%의 생산을 올리게 되였고 이제는 조합에서 모범 조합원으로 사회주의 건설자답게 일하고 있다.

우리 분단에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졌다. 그리하여 소년단원들로 하여금 조합에 든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는 낡은 사상들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교양하고 있다.

# 나는 이렇게 몸을 단련시키고 있다

공화국 스포츠 명수　　박 구람

나는 공원에서나 경기장에서나 기차'간에서나 어린 동무들을 만나면 의례히 이런 말을 묻는다.

《동무는 장래 무엇이 될려우?》

그러면 어린 동무들은 자기들의 가슴에 품었던 희망을 툭 털어 놓는다.

《공훈 탄부가 될래요.》, 《용해공이 될래요》, 《모범 농민이 될래요》, 《기사가 될래요》, 《배우가 될래요…》

이 희망들은 참으로 좋으며 나는 진심으로 이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그러나 희망은 크고 아름다운데 몸이 약한 동무들을 나는 가끔 만나군 한다.

우리가 미래의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조국의 믿음직한 일'군으로 되자면 몸도 튼튼해야 한다.

그러면 몸을 어떻게 튼튼히 단련시킬 것인가?

나는 나의 적은 경험을 동무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인민 학교 3 학년 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계절에 따라 잔병을 앓군 하였다. 나의 몸은 본래 약했다. 추운 겨울이면 할머니의 등에 업히워 학교에 간 적도 한 두번이 아니였다. 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때도 한 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니 학업 성적이 좋을리 없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시고 나에게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하라고 하시였다.

나는 하기 싫은 랭수 마찰과 조기 등산, 조기 체조 등을 하기 시작하였다.

하루 이틀 계속하는 중에 이것은 어느 사이에 관습이 되여 버리고 말았다.

1년이 지난 나의 몸은 확실히 좋아졌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학교 갈 때나 집으로 돌아 올 때면 나는 뛰여서 가고 오고 하였다.

이 운동은 나의 몸을 조화적으로(여러 가지 운동을 하여 몸을 균형있게 단련시키는 것)발전시켰으며 또한 학과 학습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게 하였다. 나는 그 때부터 최우등생으로 또한 륙상 선수로 상장을 타군 하였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평화의 원쑤 미제놈들은 드디여 조선 땅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나는 이때에 단련된 몸을 조국에 바칠 것을 결의하고 전선으로 달려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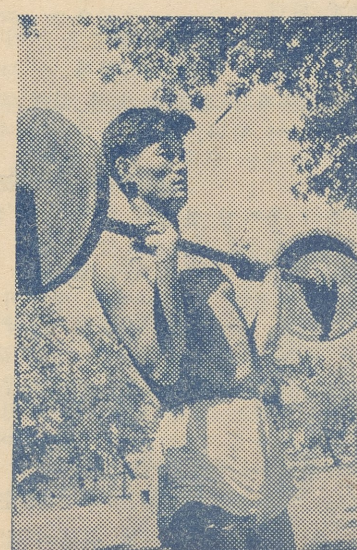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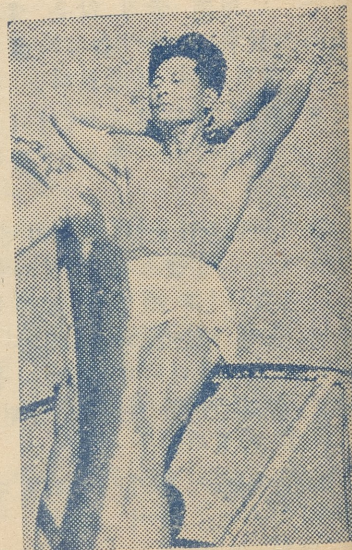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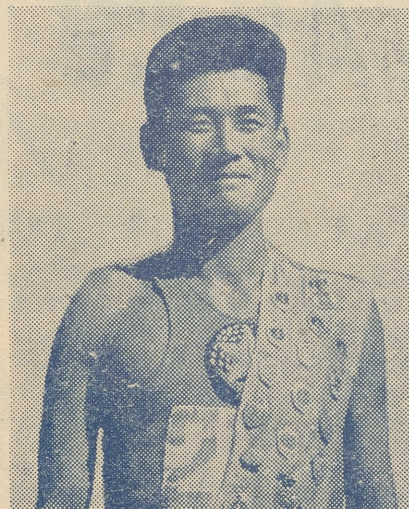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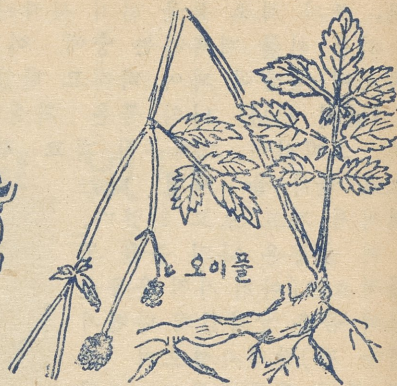
땅크 지휘관이 된 나는 대원들과 함께 서울과 인천 해방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문경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가렬한 전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마다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

만약 그 때 나의 몸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이였다면 그처럼 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몸을 튼튼히 단련시키라는 것이다. 아무리 희망은 크고 또 그 대로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일 몸이 약하다면 그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몸이 튼튼해야만 그는 자기의 희망 대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 일성 수상 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은 신체를 더욱 튼튼하게 단련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체육 사업을 더 광범하게 더 건전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의 중견이 되는 청년의 심신이 건장하여야만 우리 조국은 건전할 것이며 우리는 또 다시 남의 수모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시였다.

나는 김 일성 수상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매일처럼 아령, 철봉, 평행봉, 줄넘기, 륙상 등 운동을 하고 있다.

# 여름 날의 자연 관찰

평양 사범 대학 식물학 강좌장 림 형 원

여름이 왔다. 산과 들에는 나무와 풀들이 무성해진다. 그러면 푸른 옷으로 갈아 입은 산과 들은 우리들이 마음껏 즐기며 자연을 연구하고 몸을 튼튼히 단련할 수 있는 요람지로 된다.

푸른 산림과 물'가에서 숲을 이루고 있는 식물들은 매우 다양하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는 산채, 약초, 목초들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식물들이 자라나서 여름 날의 자연을 더욱 다채롭게 한다.

이러한 푸른 자연 풍경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른 봄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종류들이 순서 있게 자라서 여름에도 무성해지고 꽃피며 자연을 푸른 일색으로 덮는다. 그러면 어떤 식물들이 먼저 자라나기 시작하며 늦은 여름을 장식하는 종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 보기로 하자.

쇠'뜨기

여름으로 들어 서는 첫 징조는 가까운 산이나 길'가에서 자라나는 아까시야들의 흰 꽃이 늘어지면서 초여름의 산들 바람에 의해서 사방으로 향기를 운반하는 때이다.

주변 일대의 수풀 속에서는 나리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포프라와 수양버들이 물'가에서 그림지며 부락 근처의 뚝에도 비술나무, 뽕나무, 버드나무들이 무성해진다.

도시 주변이나 농촌의 주위에 있는 산들에서는 떡갈나무, 신갈나무, 시닥나무들의 잎이 자라고 소나무들에 섞여서 혼성림을 이룬다. 려행할 때 창문으로 출발을 내다 보거나 들과 바다'가에서 먼 산을 쳐다 보면 푸른 색갈로 아름답게 조화된 가지가지 나무들이 서로 엉켜 있는 모양은 사람들의 흥미를 더욱 끌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내려 그곳 식물들을 찾아 보고 싶은 생각에 사로 잡히기도 한다.

고사리

그러나 우리는 자연 관찰을 질서 있게 그리고 차근차근 서로 대비하면서 자세히 진행하여야 한다. 이제 산과 들에서 자라는 여름 식물들을 찾아 보기로 하자.

## 산에서 자라는 식물

큰 나무들이 우거진 산림의 밑에는 해'빛이 들기 힘들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갈키나물, 도적놈집행이, 짚신나물, 파리풀, 물봉선, 꿩의다리들이 분포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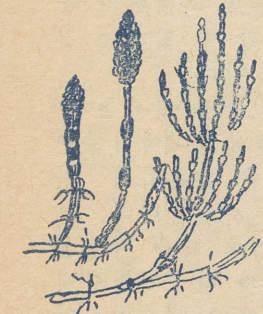
그러나 이른 여름에 산림 내에서 수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리꽃, 도라지, 둥굴레, 시호, 딱지꽃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풀들이 자라고 해'빛이 가리워지지 않는 커다란 나무들 사이에서는 분지나무, 산사나무, 싸리, 개암나무, 조팝나무, 병꽃나무를 비롯한 많은 관목들이 자라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깊은 산으로 들어 가면 다래나 머루들이 작은 나무 숲을 덮고 있으며 칡덩굴이 뻗어 나가며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나리아재비

## 들에서 자라는 식물

들에서는 큰 나무들이 우거진 산림이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 나는 조건들이 다르다. 그리고 밭과 논들을 관리하는 농민들과 가축들의 활동에 의하여 식물의 분포는 많은 변화를 가져 온다.



초원들에는 가축들이 즐겨 먹는 오이풀, 토끼풀, 비름, 잔디, 새콩, 마디풀, 능쟁이, 개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풀들이 자라고 있다. 이러한 식물들은 산 밑에 있는 경사지에서도 많이 자란다. 그러나 초원들에서 자라는 것들과는 달라서 키가 작고 줄기와 잎의 수도 적고 질이 굳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초원에서 피는 여름 꽃으로서는 미나리 아재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미나리 아재비의 꽃은 노란'빛으로 5개 화판을 가지고 있으며 초원에서 무더기로 자라기 때문에 뚜렷이 나타난다.

농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잡초들은 밭과 논 그리고 길'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엉겅퀴, 조뱅이, 바랭이, 강아지풀, 조개풀들은 밭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잡초들이다. 이 풀들은 김의털, 메꽃, 으아리, 깜뚜라지, 질경이, 굴풀, 익모초, 박하들과 함께 길'가와 뚝에서 볼 수 있다.

##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

해변'가와 거기로 흐르는 강'가의 모래터들에서 자라는 식물의 종류들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것과는 다르다. 모래터의 땅은 풀들이 자라는데 적합한 영양 물질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풀들은 군데군데 무더기로 자라난다. 이러한 땅에는 흔히 쇠뜨기들이 분포되여 있다. 그리고 사초와 화본과 잡초들이 섞여서 살게 되고 또한 길'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잡초들도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땅의 성질을 알 수 있게 된다. 오랜 시일이 경과된 물'가에 있는 땅들에서는 커다란 나무들까지도 분포되게 된다. 여기서는 버들과 소나무들도 자라게 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붉은 꽃을 가진 해당화 그리고 찔레나무들이 자란다.

관개수를 보내기 위하여 새로 축성한 제방들에서는 잔디, 나무딸기, 쑥, 까치밥 나무들이 자란다.

호수와 거기로 흘러 들어 가는 강'가에서 물이 머물어 있는 곳에서는 미나리, 붓꽃, 창포들이 자라고 있다. 물이 많고 습한 땅들에서는 택사, 골풀, 물옥잠, 역귀, 닭의 밑씻개들이 자라고 있다. 논에서는 가래를 많이 볼 수 있고 약간 깊고 물이 머물어 있는 곳에서는 마름들이 자라고 있다.

짠물이 섞이는 해변'가의 물 웅덩이에서는 갈밭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산과 들에서 자라는 산채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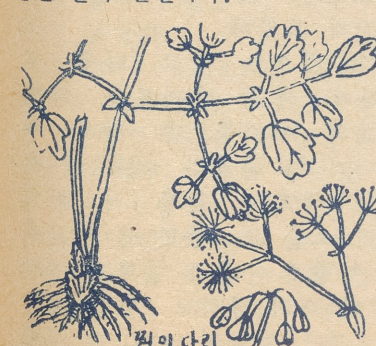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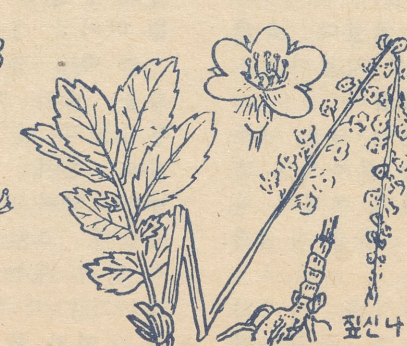
•산채는 우리의 생활에서 식용으로 리용되는 훌륭한 자원으로 된다. 거기에는 비타민을 비롯하여 유익한 영양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여 있다.

쑥, 제비쑥, 개쑥, 사철쑥, 산쑥들은 산과 들에 널리 분포되여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채집할 수 있으며 식용으로 많이 리용된다.

산에서는 수영(싱아) 참나리, 산파, 참수리취, 고사리, 두릅 나물들도 채집할 수 있다.

들에서도 메, 달래, 꽈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여름 한철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들에게 새롭고 훌륭한 많은 것을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이제 여름 방학에 진행할 즐거운 야영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널리 관찰하자.

# 어머니—당의 품 속에서


량강도 백암군 유평 림산 사업소

이계수 청년 작업소 발구 브리가다장

윤 동 찬

최 은 석 그림


눈보라가 사납게 휘몰아치는 겨울날이였다. 나는 소발구를 몰고 첫 작업을 나갔다. 그런데 쉽게만 생각했던 일은 마음 대로 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무를 싣고 갔다가 돌아 오는데 나는 나무를 실은 자리에서 뭉개고 있었다. 육중한 나무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소도 말을 듣지 않아 몰 수 없었다.

저녁에 숙소에 돌아 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힘은 남의 몇 곱 들이고도 해 놓은 일은 남의 절반도 안되니 어떻게 일을 계속한단 말인가! 나는 몹시 락심까지 하였다.

나는 문득 나의 소년단 시절을 생각하였다. 중학교에서 최우등으로 공부하던 나는 분단 위원장으로 소년단 사업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모범 소년단원으로 불리웠다. 나는 소년단원 시절에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혁명 전통을 본 받기 위한 분단 모임에서 내가 이야기한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눈 속을 자기 집으로 삼고 나무 껍질을 씹어 가며 싸운 슬기로운 혁명 투사들의 불굴의 투지를 본 받아 우리도 장차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누구보다 앞장 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조그만한 곤난 앞에서 벌써 나는 이렇게 무릎을 꿇려고 하지 않는가! 더구나 내가 일하고 있는 고장이 어떠한 곳인가! 일터에 오고 갈 때마다 바라 보이는 보천보와 백사봉 그리고 장백산 줄기가 뻗어 내려온 산'줄기들! 이 산간의 한 줌의 흙, 한 그루의 나무마다에 우리의 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피'땀이 깃들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영예롭고 신성한 일터가 또 어데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나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 나는 기어이 나의 첫 결심을 이 곳에서 이루고야 말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또한 나는 벌목장에 나오려고 결심하던 때를 생각했다. 벌목 로동으로 늙어 오신 김 승오 아바이께서 왜놈 때와 오늘의 벌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벌목장에 나오게 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만은 아니다. 그 때는 정전 직후였다. 모든 인민들이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위해 한결 같이 일떠서서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나는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설 것을 결심하였다. 나는 자기 손에 의하여 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공화국 각지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런데 학교에 같이 다니던 동무들 가운데는 웃 학교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산'골에 들어 가 무엇하겠느냐고 비웃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결심대로 벌목장으로 달려 왔던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일하여 동무들에게 자랑하리라고 결심하고 첫 날 일에 달려 붙었었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가지고 이튿날도 작업장에 나갔다. 그런데 최 종렬 아바이는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 지도해 주었다. 나는 그들이 친절히 가르쳐 주는 것을 찬찬히 생각하며 일을 계속하였다. 차츰 일이 손쉽게 되였고 속도도 빨라졌다. 이리하여 나는 점차 자기 책임량을 넘쳐 하게 되였다. 이제는 소와 발구는 내 손발처럼 마음 대로 다룰 수 있게 되였다.

나는 후에야 알게 되였지만 로동당원들은 내가 일에 익숙하지 못해 안타까와 하는 것을 알고 나를 지도해 줄 것을 회의를 열어 의논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최 종렬 아바이께는 나를 책임지고 지도할 과업을 주었고 다른 모든 당원들에게는 항상 나에게 관심을 두고 지도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나는 이렇게 로동당원들의 극진한 사랑과 지도를 받아 148%까지 자기 책임량을 넘쳐하게 되여 지배인의 표창을 받았다.

나는 이때 나를 오늘과 같이 떳떳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워준 사랑하는 당에 대한 끓어 넘치는 감사의 정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더욱 열심히 일하여 당과 국가의 두터운 배려에 보답하리란 결심을 굳게 하였다.

그 후 일에 익숙해진 나에게는 기술을 배워 울창한 나무의 바다를 마음 대로 정복하여 봤으면 하는 생각이 늘 머리 속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계수》에 기계화 작업소를 만들기 위해 청년 브리가다가 조직되게 되였다. 나는 드디여 희망 대로 기계화 브리가다에서 기술을 배우게 되였다. 브리가다가 조직된지 얼마 안 되여 새소리와 짐승 소리만이 들리던 산간에 《떼루 5호》(최신식 벌목 기계) 소리가 산울림치기 시작하였다. 그 기계는 나무를 찍는 일로부터 끌어 내리고 차에 싣는 일까지 모든 일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척척 해 낸다. 그러나 그 기계를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기계는 계속 고장이 생기고 일이 더디였다. 나이 많은 벌목 로동자들은 《옛날부터 벌목에는 기계를 못쓴다는 법인데 우겨들대지》하고 반대해 나왔다. 그러나 로동당원들은 앞장 서서 밤낮을 이어 기계 운전을 배웠고 강습회를 조직하여 기계에 대

한 지식들을 배웠다. 당은 이때 나에게 도 당원들과 같이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온갖 방조를 다 하여 주었다. 로동당원들은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하나하나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얼마 안되는 기간에 그 기계를 마음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전사가 되였다. 뿐만 아니라 기계톱으로 벌목도 할 수 있고 신호수로도 일할 수 있었으며 기타 벌목에 관한 모든 기술을 다 배우게 되였다.

그리하여 발구로 일할 때보다 10배의 일을 하게 되였고 책임량을 훨씬 초과하여 그 이상 능률을 냈다.

처음 기계를 반대하던 로인들도 혀를 차며 놀랐다.

나는 기계화 브리가다에 와서 당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 이렇게 기술을 훌륭히 배웠을 뿐만 아니라 로동당원들의 고귀한 정신을 본 받아 반드시 그들과 같은 당원이 되리라는 결심으로 일했다. 그리하여 나는 21살 되던 1956년 말에 영예롭게도 조선 로동당에 입당하였다. 그 후 나는 량강도 민청 대표자 회의에서 도 민청 위원으로 선거받았다.

지금 현재 나는 발구 브리가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브리가다에는 다수가 50세 이상인 아바이들이다.

그들은 쉬는 때면 항상 자기들을 마소처럼 부려 먹던 왜놈 때를 이야기해 주었다. 지난날 그들은 뼈가 휘도록 일하고도 감자도 변변히 못먹었다.

사철 눈이 내리는 이 지방에서 부인들과 아이들은 입을 것을 입지 못하여 굴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동물같은 생활을 했다.

그러나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산간을 보다 살기 좋고 보다 행복한 보금 자리로 만들어 주었고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산'짐승들도 오르 내리기 힘들어 했다는 이 산간에는 오늘 문화 주택이 줄지여 섰고 학교, 구락부, 목욕탕, 국영 상점 등 문화 시설이 갖추어 지고 있다. 밤이면 전등'불이 휘황한 집집마다에서 라지오 소리도 랑랑히 울려 온다.

아바이들은 이렇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꾸며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에 감사하며 하나의 나무라도 사회주의 건설장에 더 보내기 위해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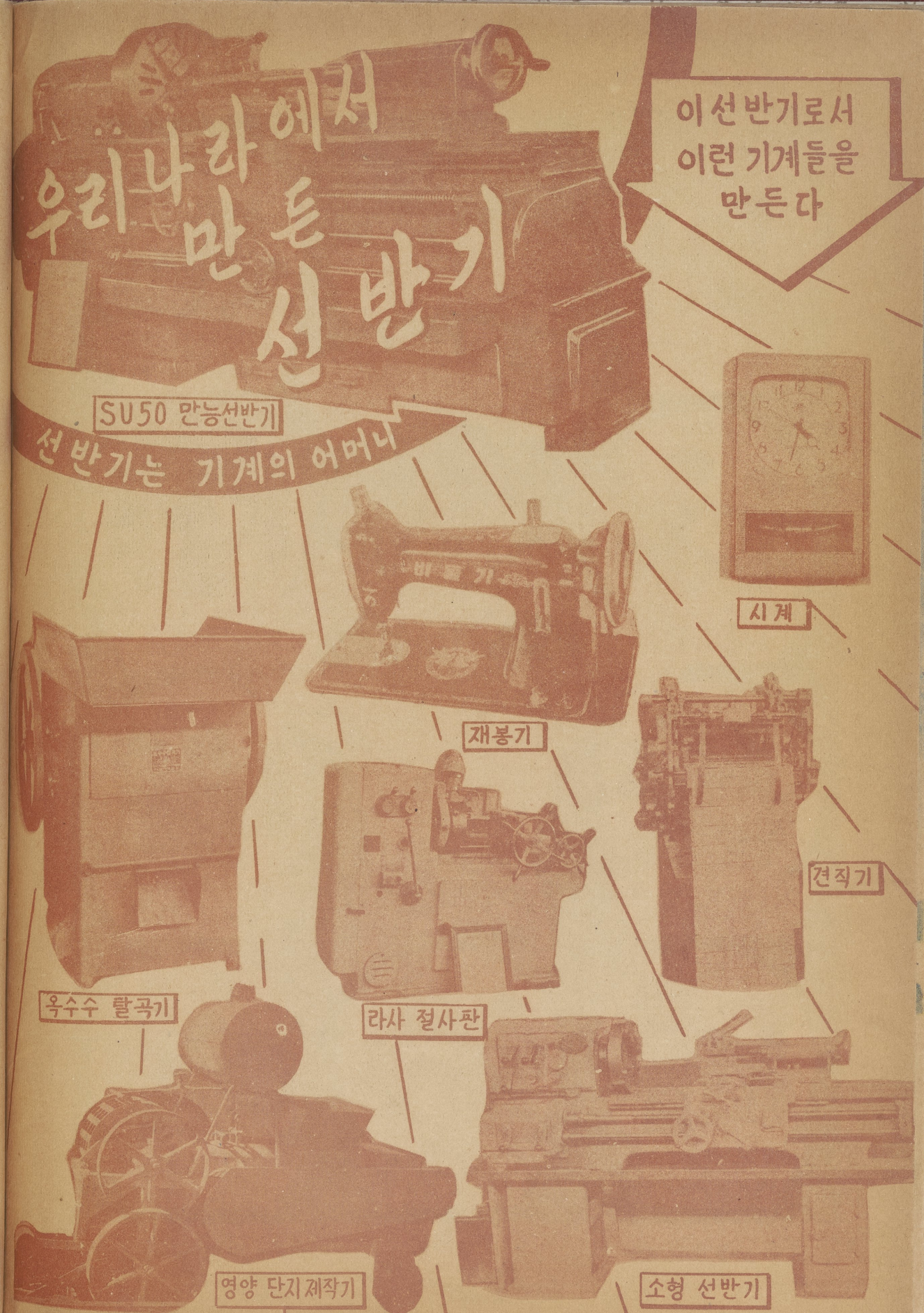
그들은 어린 나를 브리가다장으로 존경해 주고 받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아바이들도 이제는 기술을 배워달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아바이들에게 새 기술을 가르쳐 드리기에 노력하는 한편 기수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당에서는 기수가 될 것을 희망하는 동무들을 위해 기수 양성반을 만들어 매 주일 2회씩 기술 강의를 해준다. 나는 앞으로 기수가 꼭 될 것을 결심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나를 키워 주었고 림산 마을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펼쳐 준 사랑하는 당을 위해 꽃피는 림산 마을을 고향으로 삼고 영원토록 산림의 주인으로 일할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


편집 위원 김 학연(주필) 리 원우 박 응호 송 정우 신 진균 최 윤호

1958년 6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8년 6월 22일 발행 《소년단》 1958년 제 7호 (총105호)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955 값 25원 80,000부 발행

#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

여섯시가 되였다. 자리차고 일어나자.

의복은 차근차근 제자리에 걸어 놓고 아홉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자

신선한 아침 공기, 힘껏 마시며 씩씩하게 아침 체조 하나, 둘, 셋.

자기전엔 이를 닦고 발을 씻고 방안의 공기를 갈아 넣자

방안 소제, 뜰악 청소는 아침마다 우리들의 할 일

집에 와서 공부는 규률있게 하고 공부한 뒤에는 적당히 쉬자

아침이면 이를 닦고 세면을 하고 식사 전과 일한 뒤엔 반드시 손을 씻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머리와 손톱은 제때에 깎자

파리는 전염병을 옮기는 놈 한마리도 남김없이 잡아 없애자